

한전 · 한수원, 캐나다 우라늄 광산 회사 데니슨 최대주주 등극 안정적 연료 확보와 원전 수출에 호기



한국전력은 6월 16일 공시를 통해 캐나다 우라늄 광산 회사인 데니슨(Denison)의 지분 12.72%(4350만 주)를 5655만캐나다달러(629억원)에 인수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한수원은 75%대 25%의 비율로 캐나다 밴쿠버에 SPV(KEPCO Canada Uranium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를 설립해 데니슨 지분을 인수했다.

비율에 따라 한수원도 데니슨 지분 4.28%(약1100만 주)를 1885만C\$(약210억원)에 인수했다. 한국전력 · 한수원 컨소시엄이 확보한 데니슨 지분은 총 17%다.

데니슨의 종전 최대주주인 루카스 런던 회장의 지분은 우호 지분을 더해 약 10%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 컨소시엄은 이번에 데니슨의 최대주주가 됐으며 이사회 멤버에 2명을 지명하는 등 경영에도 참여하게

됐다.

한전 컨소시엄은 데니슨이 연간 생산하는 우라늄 중 20%에 해당하는 300톤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 한국의 연간 우라늄 사용량 4000톤 대비 8%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6년 이후에는 컨소시엄 지분을 10%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데니슨의 우라늄 생산량 20%를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

세계 10대 우라늄 광산 회사 중 하나인 데니슨은 기존 우라늄 광산 외에 최근 캐나다 미드웨스트의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드웨스트광은 탐사 결과 세계 최고 품질의 우라늄이 매장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데니슨은 미드웨스트 광산에 6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외에 잠비아 등에도 우라늄 광을 투자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메이저 광산 업체의 최대주주가 된 자체도 큰 의미가 있으며 안정적인 우라늄 확보와 우라늄 광산 경영 노하우 확보, 추가 우라늄 개발 가능성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Global Bond

한수원, 글로벌 본드 10억불 성공적 발행 신규 원전 건설 및 원전연료 재원으로 사용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김종신 · 이하 한수원)이 6월 10일(뉴욕)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 최초로 미화 10억불 규모의 5년 만기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발행 금리는 6.503%로 5년물 미 국채 금리에 3.625%, US\$ 리보금리에 3.09%를 각각 가산한 수준으로, 올해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이 발행한 5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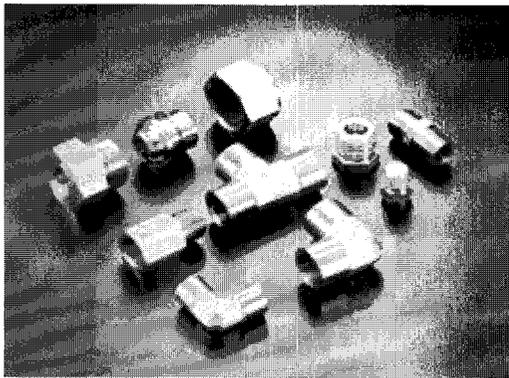
‘APR+’ 기술 개발에는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노형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을 대폭 높이고, 복합 모듈화 등의 신공업·신기술을 적용,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모델로 육성키 위한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Nu-Tech 2015’의 기술 개발 1단계인 노형 타당성 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2단계 사업인 ‘공통 핵심 기술 개발’ 및 ‘표준 설계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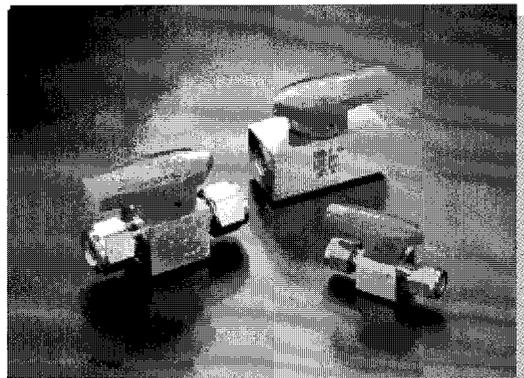
이에 관련 한수원은 6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파피아호텔에서 ‘APR+ 기술 개발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고 노형 개발 착수 이후 지난 2년여 간에 걸쳐 수행된 ‘APR+’ 개발 타당성 연구 결과인 개발 노형과 설계 기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원자력계 교수들이 개발 분야별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기술 개발 참여사 및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플렉시블 메탈호스(Flexible Metal Hose) 본격 양산 돌입 디케이테크, 15억 수입 대체 기대



▲계장용 피팅



▲계장용 밸브

순수 국내 기술로 원자력 발전용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디케이테크가 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에서성큼 진입했다.

디케이테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2년여에 걸쳐 3억원 가량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플렉시블 메탈호스(Flexible Metal Hose)를 개발했으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6월 17일 밝혔다.

플렉시블 메탈호스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제어밸브를 연결하는 핵심 부품으로, 그동안 한수원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이번 개발을 통해 국산화 대체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플렉시블 메탈호스는 기존 제품들에 비해 고압·고온에 강하면서도 유연성을 더욱 개선시킨 것이 특징이다.

디케이테크는 호스 내부에 플라스틱 소재의 주름관(쿠아튜브)을 사용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특수 소재인 스테인리스 스틸 316계열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시 발생하는 기체의 순간 압력을 최대 210kg/cm²까지 견딜 수 있어 기존 제품보다 내압성을 3배 가량 높였으며 최대 540도의 열에도 지탱할 수 있다.

디케이테크 박경수 상무는 “지난해 12월 한수원에 약 7,000만원 상당의 플렉시블 메탈호스를 시범 납품했으며, 올해 15억원 가량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4~5곳의 유럽이나 동남아의 주요 발전소와도 납품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을 하고 있다.

신임 임숙정 조종사는 “동료, 선후배 직원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게 되어 기쁘다.”며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선후배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녀는 “이번 합격에 만족하지 않고, 원자로조종사 최고의 면허로 꼽히는 원자로조종감독자(SRO) 시험에 도전해보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보였다.

한편, 울진원자력본부(본부장 염택수)에서도 입사 새내기 이진 주임(2007년 입사)이 선배 남자 직원들도 고배를 마시는 원자로조종사 면허시험(프라마툼형 부문)에 당당히 합격했다. 특히 시험 과목 중 가장 까다롭다는 ‘방사선 안전 관리’ 과목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발전소 현장 업무에서도 섬세한 감각으로 설비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 및 신속한 해결을 제공하며 공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발전소 운전업무에 대한 학습 속도가 빨라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진 신임 원자로 조종사는 “저는 발전소 운전 업무가 재미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원자로조종감독자(SRO) 면허도 취득한 후 한국 원자력계에서 여성으로서 당당히 활동하여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수원, ‘2009 품질명장’ 선정 올해로 두 번째 실시, 국가 품질명장도 배출



전성택 차장



임준혁 차장



유승범과장



윤종만과장



이대헌차장



전창식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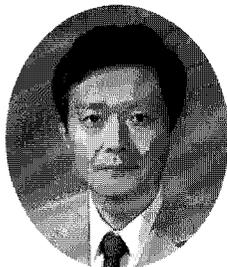


이종철과장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최근 ‘2009 품질명장’으로 영광 1발전소 계통기술팀 전창식 차장 등 7명을 선정했다. 한수원은 근무 경력 10년 이상, 분임조 활동 6년 이상, 만 3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분임조 제안 활동 및 특히 출원과 회사 경영 공헌도 등을 바탕으로 심사해 영광 1발전소 계통기술팀 전창식 차장을 비롯해 ▲ 고리 2발전소 기계팀 윤종만 과장 ▲ 영광 2발전소 방사선안전팀 이종철 과장 ▲ 영광 3발전소 기계팀 이대헌 차장 ▲ 월성 2발전소 계측제어팀 전성택 차장 ▲ 울진본부 정보시스템팀 임준혁 차장 ▲ 울진 2발전소 계측제어팀 유승범 과장을 올해의 한수원 품질명장으로 선정했다.

품질명장 수상자에게는 품질명장 증서와 메달 그리고 부상이 수여되며 한국표준협회 주관 국가품질명장에 추천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한수원 품질명장 6명이 선발됐으며, 이 중 2명이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된 바 있다. 한수원 품질명장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스탠더드’ 품질 향상을 위해 뛰어난 활동을 한 직원을 선발하여,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 및 품질 경영 문화 확산을 통해 원전 운영 및 건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로 2회째를 맞고 있다.

한수원 오승중 실장, ANS 펠로우로 선정 국내 원자력산업계 최초



▲ 오승중
한수원 원자력발전기술원
운영기술실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기술원 오승중 실장(57)이 국내 원자력산업계 최초로 미국원자력학회(ANS) 최고 권위 자격인 펠로우(영예회원)로 선정됐다.

1974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82년 미국 UC Berkeley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오 실장은 원자력발전기술원 운영기술실장으로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중대 사고, 안전 해석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원전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해왔다.

또 1996년 한전 전력연구원의 유치 과학자로 초빙돼 제3세대 원전인 APR 1400의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규제 기관의 인증을 획득하는 등 차세대 원전 개발에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오 실장의 미국원자력학회 펠로우 선정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 능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했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원자력발전기술원이 원자력 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미국원자력학회 펠로우는 원자력 및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나 성과를 이룬 회원에게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자격으로, 전 세계에서 매년 2-3명만 선발할 정도로 권위 있는 자격이다. 펠로우로 선정되면 미국원자력학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 事 動 ●

교육과학기술부

05-06

△과장급 전보

[원자력국]

▲ 원자력협력과장 한풍우 ▲ 원자력안전

과장 박필환 ▲ 방사선관리과장 송기민

▲ 원자력방재팀장 이기성 ▲ 원자력통제

팀장 김시선

[과학기술정책실]

▲ 거대과학기반과(핵융합지원팀장) 나인

광

한국원자력연구원

05-11

▲ 스마트개발본부장 김학노 ▲ 원자로시

스템기술개발본부장 한도희

▲ 원자력정책·사업개발단장 박종균

06-02

<부장급>

▲ 연구지원부장 이기복 ▲ 고속로기술개발부장

김영일 ▲ 수소생산원자로기술개발부장 장중화

▲ 정책연구부장 김현준 ▲ 스마트개발본부 사

업관리 PM 김궁구 ▲ 기술검증 PM 이원재 ▲

표준설계 PM 박근배

<팀장급>

▲ 스마트개발본부 기술관리팀장 이준 ▲ 인허

가관리팀장 주형국 ▲ 사업운영팀장 정문 ▲ 해

외사업개발팀장 이의진 ▲ 방사선육종시험장장

강시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6-01

▲ 성과관리팀장 박정섭

한국원자력문화재단

06-18

▲ 전무이사 이경숙